

學術委員會 會議 開催



○ 専門医 科目 名稱 “口腔内科”로 變更키로

○ 第14次 亜·太會議 및 第39回 大齒協 綜合學術大會 準備狀況 說明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9월21일 서울치대 제1세미나실에서 학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중훈 대치협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각 분과 학회장 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시종 열띤 분위기에서 각종의 건들이 개진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연장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수련기간 연장시 누락된 대한구강내과학회, 대한구강병리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 방사선학회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한구강내과학회의 전문의 과목 명칭을 “구강 진단과”에서 “구강 내과”로 변경키로하고 수련의 모집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남 동석 학술이사는 안내책자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아·태회의 및 종합학술대회의 준비상황에대한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1) 행사중 Plenary session을 제외한 4일간의 일부시간은 21세기의 치과의원 경영, 순 구개열 환자의 치료, 국소의치, 치주과학, 신소재 및 장비등의 Symposium을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각 분과학회의 협조를 요청.

2) 분과학회 코너, 해외 연수자 발표, 보험상담 코너, 세무상담코너, Table clinics, Poster session, 자유연자 프로그램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

3) 감사장등 발송시 외국인자에게는 아·태 조직위원장 명의로하고, 국내연자에게는 아·태 조직위원장 및 학술위원장의 공동 명의로



〈회의를 주재하는 이종훈학술담당부회장과 남 동석학술이사〉

발송키로 함.

4) 국내 특별연자를 각 분과학회에서 추천하여 줄것을 요청.

5) 기타 중요 세부사항은 학술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키로 함.

그밖에 기타 사항에서는 각 분과학회의 보조금이 인상지급 되도록 노력키로 하고 이에 대한 분과학회의 협조사항으로 교과서와 학회지등을 협회로 송부하여 국가고시문제 및 전문의 시험 시행문제등 교과과정 통일에 참고하기로 하는 한편 종합 학술대회, 국가고시, 전문의 제도, 회원보수교육 문제는 특별 위원회 에서 결정하기에 앞서 학술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